

造船·섬 관광 등 국고 20兆 요청키로

전남도는 미래전략산업과 조선항만 물류 산업 등 모두 131건에 19조 7천억 원 규모의 혁신사업을 새로 발굴, 2009년 국고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전남도는 1월 박준영 지사 주재로 2009년도 정부재정계획 반영 및 국고지원 요청을 위한 신규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실·국별로 22개 일선 시·군에서 제출한 혁신사업을 종합 분석해 미래 전략산업, 문화관광, 복지여성, 친환경 생명산업, 조선 항만 물류, 사회간접자본(SOC) 등 6개 분야에서 총 131건에 19조 7천568억 원 규모의 혁신사업을 보고했다.

이는 2008년도에 건의한 액수(6천385억 원)의 3배 수준이다.

전남도, 131건 신규사업 추진 2월 말까지 확정 정부에 건의

이날 보고된 사업은 분야별로 신재생에너지밸리 조성 2조 3천743억 원을 비롯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7천70억 원, 위그선(초고속선박) 구매운영 1천800억 원, 전남벤처펀드 조성 운영 500억 원 등 지역전략산업 분야가 모두 15건, 3조 5천421억 원에 이른다.

또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남약신도시 문예 공간 조성 1천억 원, 야생동물 복원공원 조성 4천94억 원, 섬 관광자원화 사업 5천603억 원 등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개발 3천338억 원, 해신 장보고지구 관광지 개발 1천108억 원 등 모두 23건에 1조 9천212억 원이 반영됐다.

복지여성 분야는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3천500억 원, 국립청소년자활지원센터 건립 400억 원 등 6건에 4천114억 원이 반영됐고 친환경 생명산업 분야에서 공장폐열 이용에너지절감 온실조성 1천175억 원, 친환경농식품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1조 3천억 원 등 모

두 23건, 5천147억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환경산업 분야에서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690억 원, 해상 가우리 구조조정 1천698억 원, 순천만 갯벌생태관 건립 650억 원 등 29건에 9천586억 원이며 서해안고속도로 진도 연장 7천500억 원 등 SOC 분야 사업도 28건에 9조 4천264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날 보고회에서 집계된 사업에 대해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작성하는 한편 2월 말까지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 등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대상사업을 확정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주당선인 '환경영웅상' 수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환경영웅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2006년 타임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발행 60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선정한 '영웅' 시리즈의 하나로, 이 당선인은 서울숲 등 친환경적 생태시설 조성과 청계천 복원 등 환경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법원 "론스타, 주가 조작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준 부장판사)는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희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250억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의혹의 중심 '행복한 눈물' 공개

삼성 비자금 사건 특검팀이 1일 서울 서미갤러리의 홍송원 대표가 전격 공개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홍 대표는 이 작품을 공개하면서도 진짜 주인이나 구입자금의 출처, 삼성 측 비자금으로 삼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른 미술품들의 소유 여부 등 여타 의혹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아 솔직한 의문은 흥분 특검팀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 뒀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장 유우익씨

靑경호처장 김인종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새 정부 초대 대통령실장에 유우익(58) 서울대 교수, 청와대 경호처장에 김인종(62) 전 2군 사령관을 각각 확정해 발표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유우익 내정자

가 이 당선인에 대한 오랜 정책자문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정책기조를 잡아왔고 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정책목표를 잘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백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소비자물가 4% 육박…서민고통 가중

1일 발표된 소비자물가가 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정부의 경제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200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3.9%를 기록했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동월과 비교해 5.1%나 뛰어 서민들의 물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물가가 뛰는 것은 지난해 원유·금·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시차를 두

고 본격적으로 국내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다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가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농산물도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아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운데 과(100.8%), 무(97.2%), 배추(81%) 등은 두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상반기 3.3%, 하반기 2.7% 각각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같은 물가 관리 목표는 이미 물건 더 놓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잡아왔고 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정책목표를 잘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유우익 내정자

‘한반도 대운하’ 밑그림…이당선인 ‘복심’

■ 유우익 대통령실장은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정책참모이며, ‘복심’으로 통한다.

그는 이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설립한 ‘국제전략연구원’(GSI)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과는 1990년대 중반 경부 운하 건설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밑그림을 그렸다.

▲ 경북 상주고 ▲ 서울대 지리학과·독일 기기대 박사 ▲ 서울대 교수 ▲ 세계지리학연합회(IGU) 사무총장

수방사령관·국방부 정책실장 역임 ‘군사 전문가’

■ 김인종 경호처장은

김인종 대통령 경호처장 내정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2군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군사 전문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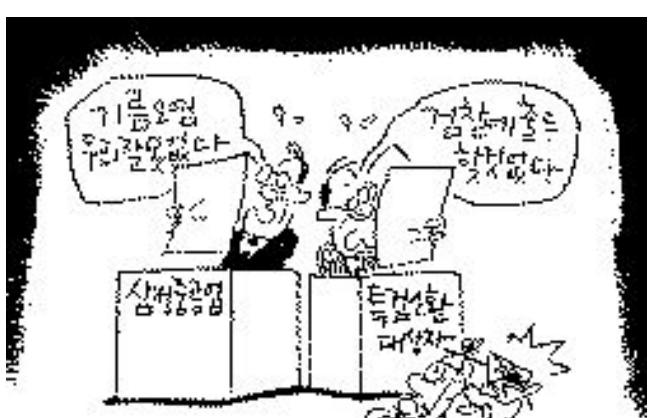
그는 2001년 전역한 뒤 예비역 대장 출신으로는 가장 먼저 한나리당에 입당해 대선기간,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국방정책자문단’을 이끌며 이명박 당선인의 경호자문 역할을 해왔다.

▲ 제주 대정고 ▲ 육사 24기 ▲ 50사단 장 ▲ 수도방위사령관 ▲ 육군 제2야전군 사령관 /백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日만정

- 김종우



한국기업 사상 최대 ‘생산 유전’ 인수

美·콩고서 매장량 9천만배럴 규모

한국이 미국 멕시코만과 아프리카 콩고에서 매장량 9천만 배럴 규모의 생산유전을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과 보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테일러 에너지사가 보유한 멕시코만 일대 해상 유전을 매입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한국이 100% 인수한 이 유전은 멕시코만 해상의 수심 20~2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채 매장량은 6천100만 배럴로 지금까지 한국이 인수한 생산유

전 가운데 지분을 감안하면 가장 큰 것이다. 한국 컨소시엄은 이 광구의 매입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전에서는 하루 1만7천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으며 2009년까지는 하루 1만9천 배럴까지 생산량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투자 후 4년이면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컨소시엄측의 주장이다.

한국 컨소시엄의 지분은 석유공사 80%, 삼성물산 20%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과 자원개발협약을 체결한 국민연금 기금도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어 국민연금의 해외자원개발 1호 사업이 될 전망이다.

산자부측은 멕시코만 유전 매입으로 지난해 4.2% 선인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이 0.57%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시·설

로스쿨 정원 늘려 지방에 우선 배정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평가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로스쿨에서 탈락한 조선대는 이사진이 총사퇴를 결의하며 광주·전남 지역사회와 연대해 시·도민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간 갈등도 심상치 않다.

청와대는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을 제시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 320만인 경남이 빠진 것은 지역간 균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강원과 제주, 전북 등의 인구 규모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은 분명하다.

청와대는 로스쿨의 경남 배정을 언급하면서 전남에는 로스쿨을 신청한 대학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광주·전남의 대표적 대학이다. 지역간 균형을 보는 격이 될 것이다.

지자체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넘었다

지방 공직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인카드로 노래방에 다니는가 하면 인사 문란과 각종 공사 관련 비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신안·강진군과 순천시 등 3개 시·군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과연 지방자치제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3개 시·군 모두 법인카드로 노래방에 드나들다 적발됐다. 심지어 신안군의 한 군의원은 한의원 치료비와 개인차량 가스 충전비에 사용했다. 세금을 자신의 호주머니 돋쳐처럼 유용한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혈세는 낭비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다. 강진군은 5급 자리에 6급을 직무대리자로 부당하게 임용하고, 인사규정을 어기면서까지 34명의 공무원을 특별채용했다. 순천시도 지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을 제작자에게 유리하게 제한해 국민들의 공직 기회를 빼앗은 것이다.

국민들은 날로 늘어나는 세금, 각종 부담금에 허리가 휙고 있다. 이런 국민의 고통을 아는 공직자라면 낙담을 이렇게 함부로 쓸 수는 없다. 더 이상 자체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해서는 안 된다.

비리 공직자들이 밭불일 틈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외부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자성과 대책 마련, 그리고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이 시급하다.

“해남 고구마·영암 무화과로 불러 주세요”

‘지리적 표시’ 42호 43호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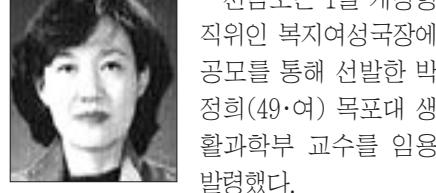
‘해남 고구마’와 ‘영암 무화과’가 새로 지리적 표시 농산물에 추가됐다.

‘지리적 표시등록 심의회’ 위원장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1일 두 지역 특산물을 각각 지리적 표시 농산물 42호, 43호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축·임산물이 특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해남 고구마는 다른 지역 고구마와

전남도 복지여성국장 박정희씨



전남도는 1일 개방형 직위인 복지여성국장에 공모를 통해 선발한 박정희(49·여) 목포대 생활과학부 교수를 임용해 밝혔다.

신임 박 국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 서울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경희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0-2(우편번호 501-711)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